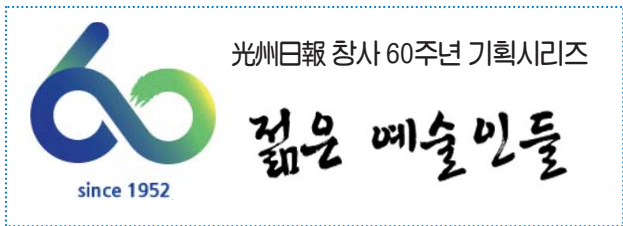




자신이 재능 기부로 공간 디자인을 한 헌책방 '아낌 없이 주는 나무'에서 포즈를 취한 김규랑씨.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톡톡 아이디어로 상상을 현실에 옮겨요”



(14) 문화 기획자 김규랑

넙따란 원목 책상에 둘러 앉은 아이들은 그림책을 보면서 환한 웃음을 터트렸다. 책장 사이 사이를 뛰어다니며 그림책을 뽐아는 아이들은 신이 났다. 원목 책상 한가운데 자리한 자작나무는 이 공간의 포인트다. 문화기획자 김규랑(43·다경아트컴퍼니 대표)씨를 인터뷰한 헌책방 '아낌없이 주는 나무'(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풍경이다.

아름다운 가게가 운영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낡고 허름한 기존 헌책방의 개념을 깨트린 북카페 형식의 공간이다. 재능 기부로 이 공간을 디자인한 그녀는 헌책방 운영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문화기획자라는 명칭을 달았지만 그녀의 활동은 전방위적이다. 맡은 일에 따라 프로그래머, 프로젝트 매니저, 큐레이터 등 다양한 명함을 가졌었다.

그녀는 무대미술 작업 등을 하며 서울에서 활동하다 2004년 광주로 돌아왔다. 그녀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건 지난 2004년 5·18 기념 행사 가운데 하나로 열린 청소년 축제 '레드 페스타'의 기획·연출을 맡으면서부터다.

"당시 5·18의 상징같은 곳이었다던 금남로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죠. 그 넓은 공간을 프로그램에 맞게 디자인하고 연출하는게 힘들었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다함께 깨지고 부딪치면서 처음 진행했던 작업이라 더 기억에 남죠. 이 일을 6년간 했었는데 이 때 문화 쪽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죠."

광주 대표 행사인 비엔날레와의 인연도 그녀에게는 큰 경험이었다. 2006년 광주 비엔날레 '140만'의 불꽃' 중 '빛카페 빛가든' 총연출, 2008년 '스프링' 프로젝트 매니저, 2009년 디자인 비엔날레 '어울림'

5·18 청소년축제·비엔날레 등 참여 재능 기부...남도 인물·5월 광주 관심 사람·공간이 화두, 광주 천변 매력적

협력 큐레이터로 활동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지난 2009년 아시아공예예술제 때는 문화비리지와 비날하우스극장을 진행했고 전국무용제 프로그램 큐레이터를 거쳐 오는 6월 열리는 전국연극제에서도 큐레이터를 맡았다.

"제가 가장 매력을 느끼는 게 '공간'과 '사람'이에요. 여기에 콘텐츠와 아이디어가 결합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비어 있는 미술관을 활용한 문화 비리지도 당시 예술감독을 맡았던 최영화 교수님이 '문화마을'을 만들고 싶다는 컨셉을 던져 주셨죠. 각각의 프로젝트에서 '키워드'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다양한 네트워킹을 만들어가죠. 예술가들은 자기만의 고유한 색깔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고 끄집어 내 서로 매칭해주는 것, 예술가와 예술가들을 연결해주는 거죠. 참여하시는 분들도 참 재미있어 하세요."

그녀는 가장 인상적인 프로젝트가 '굿모닝 양림'이라고 했다.

"남구청에서 기획한 처음 구상은 남구 지역의 역사·문화 인물을 조명해보자는 거였어요. 양림동은 원래부터 제가 참 좋아하는 공간이었어요. 사직공원의 숲과 바람소리, 낙엽은 늘 함께였던 것들이었죠. 디자인 비엔날레에 참여하면서 이장우 가옥의 매력에 푹 빠져 들었고, 호남신화대 카페 티브라운에도 자주 갔어요. 그래서 양림동 전체를 활용하자는 생각이 들었고, 이벤트성 축제가 아니라, 양림동의 숨겨진 보물상자를 열어보이자 했죠. 일상속에서 늘 양림동을 담고 있었기에, 시간이 아주 촉박한 상황에서 양림동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지만 무척 행복하게 작업했어요. 양림동 행사가 모든 네트워킹의 집합체였던 것 같아요.(웃음)"

"공간'에 관심이 많은 그녀가 요즘 탐내는 곳은 지하철역과 광주전

변이다. 삶속에 스며 있는 곳이고 삶이 녹아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전은 언제나 열려 있고 변화를 실험할 수 있는 곳이다. 정비 작업을 해놓은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사시사철 문화가 흐르는 공간이 된다면 정말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양한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면서 아쉬웠던 건 프로젝트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만다는 점이었다.

"미술과 IT의 결합, 음악과 영상의 결합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가 되지 않고 그냥 단일 행사로만 끝나는 게 안타까워요.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기획자들도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을텐데 말이죠. 뜻은 같은데 각각 다른 분야에서 소통 없이 일하다 보니 체계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거죠."

대형 프로젝트를 맡았던 그녀는 요즘 소소한 기획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남도 인물들의 콘텐츠화에 관심이 있다. 지역 인물들의 활동을 책으로, 음반으로, 전시로 보여주고 그가 살고 있는 집과, 자양분이 된 공간들을 엮어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기획한 소리꾼 윤진철의 전시회가 그 첫번째 행보였다.

5월이 다가오니 '광주'를 이야기하는 것에도 마음이 간다. 점점 사라져 가는 5·18 관련 예술품들. 광주 정신이 녹아 있는 걸계그림 등은 지금 어딘가의 창고에 방치돼 있을 것이다. 그것들을 끄집어 내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싶다. 또 5·18 인권상 수상 축하음악회를 '제2인 광주'라는 타이틀로 열어보고 싶기도 하다. "저하고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즐겁게 하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이들, 그것도 자기 존재감 강한 예술가들과 하는 작업인데 부딪칠 일도 많죠. 내가 즐겁지 않는데, 좋은 결과물이 나올까요?"

늘 양림동을 거닐었기에 양림동 프로젝트가 나왔듯, 그녀의 아이디어는 '생활'과 '체험'에서 태어난다. 지금 그녀가 빠져 있는 것은 차와 탕고, 플루트, 태극권과 문인화다. 그냥 좋아하고 책으로 접하는 게 아니라 다 몸으로 부딪으며 직접 경험한다. 그러니 탕고를 배우고 있는 그녀가 '탱고 페스티벌'을 꾸미는 건 자연스런 흐름이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머리 속에는 수많은 아이디어가 굴러다니고 있는 듯했다. 이날 기자에게만 살짝 알려준 상상이 현실이 된다면 광주가 굉장하 '유쾌한 문화도시'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 김규랑을 말해주는 세가지 키워드

### 커피·음악·사람·자연...

### 일상 속 인연이 '콘텐츠'

#### ▲네트워크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공간과 사람들. 그 안에는 수많은 콘텐츠가 존재한다. 기획자로서 새로운 공간과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끄집어 내어 새로운 창작물로 만들어 내어 주고 서로 이어주며 성장 발전시켜 나갈 때 나의 행복지수는 높아간다. 누군가가 나에게 '네트워크 종결자'라고 말한 적이 있다.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공간과 사람을 이어주고 문화와 사람을 이어주는 일을 하다 보니 그 속에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 ▲아이디어 상자

사물을 보거나 누군가와 마주앉아 커피를 마시다가도 문득 생각이 떠오르면 그 자리에서 거침없이 아이디어 쏟아낸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야 하는 나의 일상은 때론 힘들기도 하지만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펼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마냥 즐겁고 행복하다. 그렇게 나의 아이디어는 늘 일상속에 자리하고 있다. 그런 나의 아이디어를 갖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은걸 보면 내 아이디어가 꽤 쓸만 한가보다.

#### ▲지구별 여행자

좋아하는 것을 즐기다 보면 호기심이 생겨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된다. 역사, 공간, 숲, 자연, 차(茶), 커피, 탕고, 문인화, 미술, 음악, 사람 등 많은 것들이 나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차(茶)가 좋아 공부해 하다 보니 우리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자연과 문화 그리고 사람들을 알아가며 이어지는 인연들이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 왔다. 삶 또한 여행이라 생각하는 나는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인연들, 내가 머물고 싶은 공간들,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을 지구별 여행중에 많은 이들에게 행복비리서를 나눠주고 싶다. 오늘도 호기심으로 가득한 지구별 여행중이다.

#### ▲김규랑은

- 1970년 광주 출생
- 광주비엔날레 프로젝트 매니저(2008),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협력 큐레이터(2009)
- 5·18 청소년문화제 '레드 페스타' 총괄기획, 연출(2004~2009)
- 마을기업, 꿈틀이카페 프로젝트 공간큐레이터(2011)
- 굿모닝! 양림 프로젝트 총감독(2011)
- 제3회 전국연극제 큐레이터(2012)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특수가발 발매!!!**

**50만원~**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기타운상가 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검색

대산프리모가발

**태양광, 태양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 전기세, 난방비걱정은 평생 끝!! 우리집 에너지는 내가 만들어 쓴다!

신속 계획중인 고객님께는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겨울엔 난방! 여름엔 에어컨! **수도물! 도 태양열로~**

발전을 시작하면 난방이 현대생활으로 확연히 편리합니다.

설치전문업체가 국내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효율의 태양광, 태양열을 설치할 절호의 기회를 드립니다.

주택용 태양광 한전 연계형 계통설비 (3kw이하~10kw이하)설치계통합니다.

최장 36개월 분할상환 가능

영업관리 사원모집

태양광발전(주택용) 설치 후 효과 (월 350kwh 생산 기준표)

기준청구요금(사용전력량 : kwh)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요금
5만원(약 321kwh)일때	약 1,130원	48,870원
10만원(약 454kwh)일때	약 8,020원	92,270원
15만원(약 531kwh)일때	약 18,380원	131,810원
20만원(약 597kwh)일때	약 31,010원	169,510원
25만원(약 662kwh)일때	약 47,440원	202,640원
30만원(약 728kwh)일때	약 66,850원	233,150원

어떠한 궁금점이라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NAVER 강남산업 검색

상담문의 1588-4208 010-3624-5399 010-4764-0531

법인등록번호 : 409-86-22826

(주)강남산업 KANGNAM INDUSTRY